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참된 진리의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며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9월 9일 (토) 제 193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파송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슈퍼 교인이나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에 세계 선교의 임무를 맡기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28:18-20의 의미이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하신다. 따라서 그가 주신 임무는 그를 섬기는 모든 백성의 사명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면 과연 어떻게 세계 선교에 기여할지 궁금할 것이다. 작은 교회라면 어디를 가도 글로벌 차원에서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특별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며 정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대형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형편이 좋은 대형 교회와 달리 작은 교회는 목회자 사례비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관리비를 지출하기도 쉽지 않다. 어떻게

1. 희생하는 마음으로 바치라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와 같은 수준으로 선교 사역을 감

더 많이 헌금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막 12:41-43). 바치는 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교회들이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



캠퍼스로 돌아온 대학생들 여러분의 교회는 초대할 준비가 되었나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용품 구입, 등하교 라이드 준비, 간식 비축 등 새 학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을 앞두고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기 위한 Back to School 준비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새 학기 개학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듯이 여러분의 교회가 대학 근처에 있다면 캠퍼스로 새롭게 오게 된 신입생들을 초청하고, 도울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대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6가지 방법

18세에서 22세 사이의 신규 및 복학 학생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는 이러한 학생들을 환영하고, 포함하고, 제자화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까운 캠퍼스에 오는 학생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초대하세요.

지역 캠퍼스 사역에 연락하여 신

입생이 언제 이사하고 학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아보십시오.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사하는 날 예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와 함께 물병을 나눠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팀을 동원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또는 캠퍼스 사역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입생들과 교회 초대를 공유하도록 요청하세요. 교회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 코드로 환영 포스터를 만들어 학생회관과 캠퍼스 카페에 걸어도 좋습니다.

(3면으로 계속)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4면

푸른초장 신동기 목사



7면

청교도들의안락한학(학) 이길호 목사

(3면으로 계속)

세계 선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교인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겠다는 열정이 부족해서이다.

그런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소식은 그게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대서명에 깊은 관심을 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단지 접근 방식에서 더욱 사례 깊으면 된다. 작은 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당할 수는 없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얼마든지 대형 교회에 풍부한 자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관심이 결코 돈의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큰 금액을 헌금하는 부자들 사이에서 고작 동전 두 닢을 헌금한 과부를 주목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과부는 가난 중에 구제했기에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한 사람들보다 훨씬

희생 정도이다. 이 원칙은 단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선교는 희생의 헌금이다. 작은 교회들이여, 바로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 교회가 작기에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희생하며 바치는 헌금의 가치는 더 높아진다.

신약에서 가장 관대한 교회의 하나가 마케도니아의 작은

하였을 뿐만 아니라...”(고후 8:2-3). 희생하는 헌금에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뛰겠다는 관대하고 헌신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작은 교회는 헌금 액수에 고민하는 대신 세계 선교에 얼마나 헌금을 늘릴 수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워싱턴, 뉴욕, 뉴저지 포스메가 남성 합창단 미 동부 공연

POSMEGA MALE CHOIR

2023. 10. 1.Sun 10:30 am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시무)

2023. 10. 1.Sun 5:00 pm
뉴욕 장로교회 (김학진 목사 시무)

2023. 10. 4.Wed 7:30 pm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 시무)

2023. 9.29.Fri 7:00 pm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시무)

주최 포스메가남성합창단
주관 뉴욕 뉴저지 대광중고등학교 동문회
후원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퀸즈 장로교회, 뉴욕 장로교회, 필그림 선교교회
문의 송성렬 (201) 321-9901
김찬동 (646) 300-5891
한성역 (718) 570-5577

Conductor **강기성**
Piano **최혜진**

발행인 칼럼

관찰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관찰아”는 정말 관찰은 말이다. 자그마한 것에도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는 세상에 부족해도, 실수도 “관찰다”는 말을 들으니 당사자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하신주 선교사님이 남편 고(故) 김중원 목사님과 함께 쓰신 책 “그래도 관찰아”는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제대로 못했어도, 실패했어도 그래도 관찰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을 들은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변화되곤 하였다는 것이다. 왜 “관찰아”가 청소년들에만 필요하겠는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교우에게도 친구에게도 모두에게도 필요하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들려줄 말이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못났다고 끝났다고 좌절(挫折)하고 자학(自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하자. “관찰다.” “이만하면 잘한 것이다.” “다시 일어선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관찰은 것은 아니다. 이단(異端)은 결코 조금도 관찰은 것이 아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아니다’고 주장한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에게 ‘그 정도면 관찰다’고 말하지 않았다. 동성애자에게 가혹한 동성심을 갖고 관찰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거짓이나 탐욕이 어찌 관찰은 것이겠는가. 하나님께 불순종이, 부모에게 거역함도 관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을 익히 알고 있다. 말씀의 참된 전파, 성례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다. 교회의 역사는 교회 안에 치리(治理)할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도 한국에서 담임으로 있을 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여섯 차례 치리를 하였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네 번을 치리하였다. 그 때 그 사안(事案)들을 “관찰다”고 했었다면 교회 안에 혼란과 혼탁과 무질서가 겹잡을 수 없이 이어졌을 것이다. Right time에 “관찰지 않아”라는 말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관찰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거기에는 선명한 경계선(境界線)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 관찰다고 하지 않으신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를 다 돌려보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관찰다는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어설피 박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에 보면 인간의 네 가지 상태의 자유의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무죄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타락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은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 영광 상태에서의 자유의지이다. 현재의 그리스도인은 은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부패한 성향이 남아 있는 육체에 담긴 제한적 자유의지로 “관찰아”를 쉽게 남발하면 정말이지 관찰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濃厚)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애매한 자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관찰다”와 “관찰지 않다”의 경계선은 탁월한 분별력을 요청하며 엄격한 훈련을 요망한다.

‘하나님 카드’를 함부로 쓰지 말자

“저 사람과 데이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이 직업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어젯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른바 “하나님 카드”(God card)를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내린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결정의 순간을 놓고 볼 때, 그게 과연 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감이 작용한 건지 분명하게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 아니면 지극히 인위적인 걸까? 구체적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속삭임, 느낌, 충동, 즉흥적인 생각, 그리고 주장으로 바뀔 때, 대화는 엉망이 될 뿐 아니라 남용되기 쉬운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신자라면 모든 암시를 무분별하게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문화를 조장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한다(살전 5:21). 성경이 검증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가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나님 카드가 잘못 쓰이는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달을 보냈다. 그리고 미리 녹음한 선언문에서 파괴의 난동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TREAD 같은 사건을 단지 극적이고 예외적인 고립 사례로 치부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모두가 스크린을 눈앞에 끼고 사는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다. 실제로는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라고 착각하는 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책임을 다하며 산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나를 진정으로 아는 누군가의 조언 없이는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 감각을 잃

달걀을 주문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 5초마다 말씀하신다는 이런 식의 주장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지혜의 원리이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한다. 언젠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성경의 권위 아래 살 때 하나님의 뜻은 애타게 길을 찾아 헤매는 미로라기보다는 즐기면서 탐험하는 정원과 비슷하다.”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라고 끌어낼 필요가 없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

1. 고립

코로나19가 하나 확실하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신학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혼자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속고 방향 감각을 잃는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성이 불러일으킨 총동마저도 하나님의 인도로 착각하곤 한다.

“고립이 불러일으킨 끔찍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사례는 끔찍한 사회적 고립을 겪은 마빈 히메이어(Marvin Heemeyer)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TREAD이다. 그는 적대적인 이웃의 비즈니스를 파괴하기 위해 비밀리에 불도저를 장갑차로 바꾸는 데 몇

을 수 있다.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당신이 느끼는 바를 믿을 수 있는 다른 교인에게 먼저 이야기하라. 당신 생각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느끼는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기 전에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운운하는 “하나님 카드”를 꺼내면 안 된다.

2. 습관성 어휘

일부 기독교 교파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나를 이 가계에 오게 하신 것도, 이 자리에 주차하게 하신 것도, 저 사람에게 메모를 쓰게 하신 것도, 이 거리를 걷게 하신 것도, 그리고 팬케이크 대신 오늘

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 대신 우리가 취할 행동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앞에 놓고 용기 내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번덕을 합리화하려고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 당신의 생각을 담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행여라도 “하나님 카드”를 자주 이용한다면,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라. 당신의 언어에서 제거해야 할 생각 없이 뱉는 습관성 용어인지 아니면 주님께 진짜 들은 메시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파송...

(1면에서 계속)

2. 창의성 있는 파트너가 되라

뉴잉글랜드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로 나는 지금 뉴잉글랜드 한 지역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다른 교회에 비하여 규모와 자원이 열악한 우리 교회는 교회를 함께 개척하기 위해 다른 일곱 개의 소규모 교회와 협력했다. Village Green Collective의 목회자들은 깊은 형제애를 키워 왔으며,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재정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작은 교회들끼리 맺는 관계, 재정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계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지역의 다른 작은 교회들과 힘을 합쳐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건 어떨까? 세계 선교라는 사명이 진전됨에 따라 이런 파트너십이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파트너 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를 방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교회가 작을수록 쉽게 고립된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창의성 있는 파트너십을 위한 많은 기회가 있다. 나는 최근에 미시시피주 허리케인 피해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구호금을 제공하기 위해 교단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 소규모 침례교회의 이종직 목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교회는 세계 선교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교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80개의 작은 교회가 함께 현금한다면, 그 전체

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 열방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쳐 새롭고 창의성 있는 파트너십의 구축을 함께 꿈꾸는 것은 어떨까?

3. 관계에 투자하라

세계 선교를 앞두고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기보다는 대형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투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싱턴주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야말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에 특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교인이 70명인 교회의 경우에 교인 모두가 다들 선교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은 교회는 방문 선교사에게 훨씬 더 쉽게 강단을 오픈할 수 있으며, 이는 교회와 선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와 지식을 더 깊게 만든다.

작은 교회는 가족과 같다. 교회에 방문한 선교사에게 온 교회가 존경과 환대를 보여줄 수 있고 한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위싱턴주의 목사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인 대부분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눴다고 말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대형 교회에 비해 선교사를 지원할 자원은 적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관계의 성장에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교회 소그룹은 각각 선교사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고, 또 돌봄 패키지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 평신도 지도자를 포함한 팀을 보낸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

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는 없다.

4. 쉬지 말고 사랑하라

작은 교회는 길게 내다봤을 때 사랑을 나누는 데 능숙하다. 끈질긴 믿음이야말로 작은 교회의 생존 수단이다. 그들은 어쩌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깊이 사랑한다. 한때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사랑한다. 선교 동역자에게는 필요한 게 바로 꾸준한 헌신이다. 작은 교회가 탁월한 부분이 바로 선교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견고한 사랑이다.

나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선교사로 사는 가족을 꾸준히 지원한 아주 작은 교회를 알고 있다. 그 교회 목사는 예배 시간에 종종 선교사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한다. 선교사 가족은 그 교회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작은 교회 목사들이여,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해보자.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교인 수가 적어서가 아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겠다는 열정이 부족해서이다.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품어야 할 관심이 너무도 작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회생의 사랑을 베풀려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작다.

더 잘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꼭 숫자로 성장해야 하는 건 아니다. 진짜 키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열방에 대한 당신과 나의 사랑이다.

by Stephen Witmer, TGC

시론

흑백사회와 컬러사회



은희곤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앵거루는 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아주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체, 하체 모두 근육질로 탄탄한 몸을 가진 앵거루는 강력한 발차기로 상대를 강타하며 싸웁니다. 게다가 앵거루의 발톱은 생각보다 뾰족해 복부를 가격당했을 땐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건강한 성인 남성도 쉽게 제압하기 힘든 동물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앵거루에게 가슴팍을 걷어차여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발톱에 베이는 바람에 22바늘이나 꿰매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앵거루를 제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앵거루는 싸울 때 상체를 꼳꿏이 일어난 채 싸우는데 자세를 낮춘다는 것은 싸울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습성을 지닌 타조가 있습니다. 타조는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조류로 꼽히는데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이 과묵해 종종 사람에게 돌진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조를 제압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바로 손을 최대한 번쩍 드는 것입니다. 타조는 자신보다 큰 상대에게 잘 공격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온 글)

앵거루와 타조의 습성을 알면 제압(?)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百戰不殆, 百戰不殆)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미국의 사회철학자인 찰스 케터링은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면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매일매일이 문제 앞에서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 겁을 먹고 두려워 의기소침해 주눅 들거나 떠드는 사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무작정 달려들지만 하는 사람, 이리저리 살피며 썩썩 머리를 돌려 오히려 단순한 문제를 한참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사람,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며 평생 두드려만 보다가 문제를 키우고 시간 소비하는 사람.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가 생긴 이유와 동기와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한 후 침착하게 문제해결의 길을 생각하며 나서는 사람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의 길을 가십니까? 요즘은 너무나 대립되어 양극화된 사회(사람들, 군집들)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겠지만 그 중 하나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990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 동독 사람들은 컬러 TV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유는 서독과 동독이 문화 교류 차원에서 상호 간의 TV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동독 사람들도 서독 사람들처럼 컬러로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일화 중 하나입니다. 동독에 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흰색도 색일까?" "물론 색이지." 그러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검은색도 색일까?" "물론 검은색도 색이지." 동료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질문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 흑백 TV도 컬러 TV네." 맞습니다. 흑백도 컬러(color)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해도 컬러입니다. 여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인종들이 함께 모여도 더 좋은 컬러입니다.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성이 특징입니다. 다양성의 특징은 자기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존중'입니다. 이분법적인 '흑백 사회'는 항상 대립과 적대적식으로 문제를 만들지만 그러나 흑백도 컬러임을 인정하는 '수용과 존중'이 있는 다양성 즉 관용의 아름다움이 살아 움직이는 '컬러 사회'는 직면한 대립과 적대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해 나가는 성숙한 '컬러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육과 훈련과 삶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음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기반을 닦고 물꼬를 터주는 시작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창 9:13)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은 각자의 색으로 존재합니다. 각각의 색들이 각각의 색들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무지개라는 하나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컬러사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일이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하나되는 아름다운 '무지개 컬러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면 너무나 비약일까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흑백을 컬러로 수용하지 못하는 '흑백사회'로만 간다면 분열과 대립의 심화된 양극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공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개인이나 군집들이나 사회 안에서 흑백을 컬러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컬러 사회'를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간다면 결국 선명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는 다른 것들(방식, 사고, 판단, 가치관, 방향, 길 등등)에 대한 비판과 대립을 스스로 가라앉히고, 나와는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존중해 나가는 '스스로의 컬러훈련'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기도하며 실행해 나간다면 우리들 앞에 직면한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7)

pastor.eun@gmail.com

캠퍼스로 돌아온 대학생들..

(1면에서 계속)

2.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대학생들이 돌아오면 예배당이 조금 더 붐비거나 주차장이 더 빨리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교회는 더 많은 좌석을 마련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베이글, 커피, 간식 등을 주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준비할지 예상하는 것은 좋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 마음속에 마련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좌석이나 "당신의" 주차 공간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환영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신 방식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로 출석하는 학생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환영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3. 그들과 소통하십시오.

학생들은 어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들락날락한다면 이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심지어 약간 위협적일 수도 있음). 하지만 작은 행동이라도 학생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에 혼자 오는 학생들 중 친밀한 소통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알아가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살던 곳이 어디였는지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지, 가족들과 지금까지의 경험, 대학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기숙사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물어보세

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학생들 개개인을 알아가려는 진지한 노력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4.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안타깝게도 대학 시절의 식사에 대한 불만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등록금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대학생 중 최소 30%가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친교를 나누는 것은 환영과 보살핌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됐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9면으로 계속)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목 사
영어: 평신도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꿀보다 더 단것은?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을 미각으로 먹고, 인도 사람들은 촉각,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시각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온몸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일단 상추에 밥을 얹고, 고기 얹고, 쌈장을 바르고, 마늘도 넣고 무지막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그 큰 걸 입에 다 넣습니다. 얼굴 근육 대부분을 사용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습니다.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 취향, 그리고 먹는 방법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하면 건강하고 장수하지만, 반면에 입맛을 잃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마 4:4)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는 능력입니다. (히 4:12)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눅 5:8) 말씀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출 15:26)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시 19:7) 말씀은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능력입니다. (사 40:29) 말씀은 두려움에서 건지는 능력입니다. (시 34:4)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요 11:43)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담후 3:16-17)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시 1:3)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롬 1:17)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보다 달다고 고백합니다. (시 19:10)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달콤한 말씀을 정구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LECTIO DIVINA)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온몸을 드러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MEDITATIO)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음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여 말씀의 관점에

서 나의 삶을 재조명하고 내 삶을 말씀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ORATIO)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새롭게 경험하며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고 꿀송이 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매일 먹고, 매 순간 묵상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푸/른/초/장

신동기 목사
(뉴욕심포니교회)



요셉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 하면 꿈의 사람,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에 이끌려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 사랑이 그가 가장 끔찍하게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고난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요셉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의 자녀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 8:17)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성도는 요셉을 보고 요셉

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창 37:3-4)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채색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채색옷은 여러 가지 색으로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의 아들들은 장자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요셉, 즉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라헬의 맏아들 요셉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을 상징하고, 상속권을 상징하는 채색옷이 요셉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질 때, 그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습니다. 속옷인 채색옷을 벗겼다는 것은 알몸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요셉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도 요셉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속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알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모형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백성들과 요셉의 가족들을 위한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형제인 유대인으로부터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린 것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께 서로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같이 행동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하

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은 단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수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렘 7:23)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꾀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 41:15-16)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셔야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과 요셉의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난 뒤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를 버리는 자입니다. 성도는 죽고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dongkshin@gmail.com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창세기 39:2, 23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39:2, 23)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친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종으로 팔려 간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이런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도의 형통은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의 어떤 삶도 형통한 삶입니다. 전 재산을 모두 잃고 노숙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삶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부와 권력, 행복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과 같이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의 형들보다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그 일로 인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일까요, 채색옷을 입혔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꿈이 요셉에게 입힌 채색옷은 왕족들이 입는 손바닥까지 덮는 소매가 긴 속옷을 말합니다. 또한 이 옷은 장자권을 나타내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장자권은 당연히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에게 가야 했지만 열 한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대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대상 5:1-2)

맏아들 르우벤이 범죄로 그 장자권을 빼앗겼으면 다음 아들 시므온에게 가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열 한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두 언약을 의미합니다. 레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라헬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오실 것을 예정하신 것처럼, 요셉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미리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 택하신 자에게 고난의 행동을 주십니다.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런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남께서 택하신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택함받은 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4:12-13)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은 알리라” (벧전 5:9)

만약에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내가 정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모르면 어려운길, 알면 쉬운 구원의 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삼일을 못 넘기고 흐지부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의들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 9월을 맞이하는 이때에 뒤를 돌아보고 점검

을 해 보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지키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세운 결의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잘 지키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3장 15절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죄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곧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전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람을 미워하는 것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 안에 활동하는 죄는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미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본능적인 미움의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켜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한계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아는 만큼 온전히 행동으로 지켜내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잘 지켜냄으로 구원을 얻

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소망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망은 이것입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사 53:5).

대명사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찢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찢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 죽음을 맞이한 것은 모두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

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되었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그분을 의지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브라질 10대들의 신앙이 뜨거워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브라질 청소년의 열정이 뜨겁다. 이들의 73%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답한 세계 26개국 청소년 수치(38%)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한다.

미국 크리스천네트워크데이(CT)는 지난달 29일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의 최근 설문 조사를 인용해 “예수를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디지털 세대의 본거지가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를 걷어 보아준다”고 보도했다.

바나그룹은 2021년 7월부터 한 달여간 브라질 온두라스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 13~17세 청소년 3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들과 비교하기 위해 26개국 청소년과도 같은 설문을 진행했다. 이 결과 4개국 청소년의 신앙 열정이 여타 국가 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브라질 청소년은 예수와 성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브라질 기독교 청소년의 경우 예수를 구세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개인적으로 예수에 대해 믿는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브라질 기독교 청소년의 74%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한다’고 답했다. 또 60%는 ‘현 세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응답했다(그래프 참조). 기독교에 헌신적인 청소년 비율도 다른 국가 평균(25%)보다 4개국 평균 수치(37%)가 더 높았다. 브라질 청소년의 경우 45%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에 속했다.

시가 써주는 짝퉁성구...주의보 났다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레딧’에 최근 ‘예수는 트랜스젠더를 용납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글쓴이는 인공지능(AI)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생성한 이 메시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작한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기준과 메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일 레딧 등에 따르면 이같은 ‘가짜 성구 논란’은 레딧 사용자인 A씨의 포스팅에서 시작됐다. 그는 챗GPT에 “예수가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인다는 가짜 성경 구절을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그는 AI가 생성한 별도의 문장들도 덧붙였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자나 여자가 없고 모두 영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 나라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은 몸이 아닌 마음을 보시느니라” 그가 받은 답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라는 실제 성경구절과 내용·구조가 비슷했다.

A씨가 해당 메시지를 가짜 성경 구절이라고 밝혔음에도 네티즌들은 솔렷했다. 한 네티즌은 댓글로 “진짜 성경 구절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에게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성경은 모든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에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서도 “성경을 쓴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로 단속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진실하다” “예수는 트랜스젠더를 100% 지지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리는 등 ‘가짜 성구’가 마치 성경 속 메시지로 둔갑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은 “이단 사이버 단체가 AI에 정교한 교리를 만들어달라고 이용할 수 있다”며 “성경을 어중간하게 알다간 이들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주어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를 지닌다. 윤리적 검토 없이 가짜 성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다.

최 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교리 교육이 중요해졌다”며 “기독교 기본 교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AI의 거짓 정보를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의 거짓 메시지를 예방할 기준도 요구했다. 최 소장은 “어떤 범위 내에서 교회가 AI를 활용할지 메뉴얼이 없다”며 “총회는 메뉴얼을 만들고 신학교는 AI 활용법을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미국 6개 도시서 ‘God Loves You’ 투어

올가을 미국 6개 도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God Loves You)’는 메시지가 울려 퍼진다. 빌리그래함전도협회(BGEA)는 다음 달 24일부터 9일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5개주 6개 도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투어를 진행한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BGEA는 세계적 복음주의자 빌리 그레이엄(1918~2018) 목사의 뒤를 이어 장남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그레이엄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은 우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감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심화하고 있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복음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서 시작, 10월 2일까지 열리는 투어에는 지역교회 700여곳과 목회자들이 동참한다. 일부 도시에선 크리스천 록 밴드 뉴스보이즈(Newsboys) 싱어송라이터 마르코스 윌트(Marcos Witt)의 라이브 공연도 열린다. BGEA는 지난 26일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투어(사진)를 열고 복음의 메시지를 나눴다. 미 기독교매체에 따르면 집회에 1만8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1400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결심했다.

그레이엄 대표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견해 때문에 일부 동성애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른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이 투어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레이엄 대표는 “동성애자나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한다”고 말했다.

중리창 만나는 기시다, ‘오염수 갈등’ 해법 찾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 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촉발된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푸는 것이다. 방류 이후 양국 정부 간 첫 만남이어서 일본에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중국의 규제 해체에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낼지가 최대 관심사란 얘기다.



일본 정부는 이번 두 다자회의 기간에 맞춰 중국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했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대신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리창 총리와 대면 회담을 진행하느냐는 물음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본측이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섰지만 중국측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언론들은 일·중 양자회담이 진행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의 개별적 만남이 이번 주 안에 이뤄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양자회담이 성사될 듯한 분위기가 아니라며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공개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는 리 총리에게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논의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폭넓은 국가로부터 이해를 얻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동남아시아 10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한국 호주 등 주요국 수뇌부도 참석한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중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중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남반구 ‘겨울 폭염’ ... 세계 최고도 티티카카 호수 수위 급감

남반구에 전례 없는 ‘겨울 폭염’이 불어닥친 올해 세계 최고도 호수인 남미 ‘티티카카’호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NN방송은 3일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에 걸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의 수위가 폭염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수의 수량이 해마다 달라지지만, 기온 위기로 변화의 폭이 더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상학자 테일러 위드는 방송에서 “남반구의 겨울에선 찾아보기 힘든 기록적 폭염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하고 가뭄까지 발생했다”며 “호수 근처의 물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호수가 위치한 안데스산맥의 지난달 기온은 한때 37도까지 치솟았다.

페루 기상수문청 식스토 플로레스 푸노지역 담당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강수량이(같은 기간) 평균보다 49% 적었다”며 “이 기

간은 보통 수위가 회복되는 우기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동안 호수 수량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발한다면 연말에는 수위가 역대 가장 낮았던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볼리비아 기상수문청은 티티카카 호수의 수위가 1996년 당시보다 25cm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친다고 밝힌 바 있다. 1992~2020년 위성 이미지를 조사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티티카카호는 연간 약 1억2000만t의 물을 잃고 있다. 주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다.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호수는 아이마라·케추아·우로스 원주민 공동체의 고향이자 안데스산맥 중앙의 해발 약 3800m에 있는 세계에서 항해가 가능한 가장 높은 호수다.

호수 인근에는 30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로 농업 어업 관광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호수 수위가 급감하면서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어업의 경우 줄어든 수량에 더해 수질오염, 남획(자원량의 변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이 잡는 일)에 따른 어족 자원 감소 문제까지 겹쳤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분석가인 코너 베이커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생계를 호수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는 특히 취약하며 수위의 심각한 변동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진흙탕에 7만명 고립’ 美 네바다 사막서 대탈출 시작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사막의 진흙탕에서 이틀간 고립됐던 7만 인파의 대탈출이 시작됐다.



블랙록사막에서 나무 인형을 태우는 ‘버닝맨(Burning Man)’ 축제를 주최한 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차량 운행 금지령이 해제됐다. 블랙록사막에서 대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호전되고 도로가 마르고 있지만, 특정 구간에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주요 출입로를 빠져나갈 때 서행하고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버닝맨 축제는 지난달 27일 블랙록사막에서 시작했다. 주말인 지난 1~2일 기습적인 폭우로 흙과 모래로 이뤄졌던 땅은 진흙탕으로 바뀌었다. 당시 24시간 동안 기록된 강수량은 이곳의 2~3개월 평균인 0.8인치(20mm)로 측정됐다.

진흙탕으로 돌변한 행사장에서 수만 명의 참가자는 고립됐다. 사륜구동차량 일부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캠핑카와 승용차, 오토바이 대부분은 진흙탕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축제 주최 측은 안전을 위해 2일부터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일부 참가자는 10km나 이어진 진흙탕을 걸어나갔다. 블랙록 축제는 사막 한복판에 차량을 가져와 직접 숙식을 해결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 덕에 고립된 참가자 대부분이 굶주릴 일은 없었다. 고립된 참가자끼리 물과 음식을 나눠 쓰며 질서를 유지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주최 측은 지난 3일 밤까지 행사장에 남은 참가자 수를 7만2000명, 이날 정오 기준으로 6만4000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하룻밤 사이 8000명이 탈출에 성공한 셈이다. 이에 주최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식적인 ‘엑스더스(대이동)’를 선언했다. 행사장에 악천후가 찾아왔던 지난 1일 참가자 1명이 사망했지만, 주최 측은 “폭우나 날씨의 영향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SNS와 커뮤니티에서 “행사장에 예볼라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는 낭설이 떠돌기도 했다. 주최 측은 “전염병 발생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 (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태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잘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교회) 전체에 복을 주시고, 반대로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당시 영국은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로서 사회 전체가 교회였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축복과(covenant blessings)과 언약의 저주(covenant curse)를 굳게 믿었다.

엘리자베스 여왕(1세)의 통치 기간 초기에 영국 국교회 내에 “엘리자베스 합의”(the Elizabethan Settlement)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혹은 양보) 속에는 칼빈주의 교리들과 동시에 카톨릭 예배의 예식을 지속할 것이며, 그리고 교회 정치에서는 감독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교도들은 영국의 종교개혁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매우 분노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1558-1603) 아래에서 영국 교회는 대체로 개혁과 교회에 속했다(물론 청교도들이 볼 때는 영국 국교회와 많이 다름과 양보를 했지만). 요약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의 영국 교회는 신학은 개혁신학(칼빈주의)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예식과 교회 조직은 영국 국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 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대주교(Archbishop)였던 윗gift(Whitgift)는 헨리 불링거(Henry Bullinger)의 설교집<The Decades of Henry Bullinger>(10개 단위의 설교집)을 모든 영국 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읽도록 지시했다. 헨리 불링거(독일어: Heinrich Bullinger)는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이다. 윌리엄 츠빙글리의 후계자로서, 44년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신학은 개혁신학이었고, 예전과 교회의 형태는 국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크롬웰 장군의 시대(1599-1658)에서는 청교도 안에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웨이커교, 등 다양한 성도들이 포함되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색채는 매우 다양했다. 물론 나중에 청교도는 장로교회와 회중(독립)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청교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혹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아니었고, 모국어 성경(native bible)이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청교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 문서였고, 청교도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욱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었고, 특히 모국어 성경이었

다. 청교도들의 신학과 신앙은 전적으로 성경에 기초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읽어야 함을 강조했다. 물론 16세기에 성경의 자국어 번역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으며 많은 논쟁의 원인이 되었고 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영어 성경번역 중에서 청교도들에게 제네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제네바 성경은 영국에서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피난가서 칼빈과 함께 연구하는 동안 1560년에 처음 영어판으로 출판되었다. 이 성경은 결국 1611년의 KJV로 대체되었다. 제네바 영어성경은 KJV 출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청교도 운동과 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알 필요가 있다.

1526년, 윌리엄 틴데일 William Tyndale)의 신약 성경 번역판이 영국 국교회에 출판에 출판되었다; 1534년, 헨리 8세가 수장령(Acts of Supremacy)을 발표하고, 로마 교회와 결별하다; 1547년,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다. 에드워드 왕이 즉위하자 영국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활발하였다; 1553년, 로마 카톨릭 메리 여왕이 즉위하여, 이때 영국의 청교도들 300명이 순교당했고, 800 여명이 대륙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이 제네바를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준비하다;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다. 엘리자베스 중재안(Elizabethan Compromise)을 내어 놓았지만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 개혁안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국교령(The Act of Uniformity)이 선포되고, 영국교회 기도식(Anglican Prayer)이 공예배에 공식 문서로 채택되었다(1559). 이 기도집 사용을 거부하거나 비방하면 범죄자가 된다; 1569-1570년, 캠브리지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교수가 사도행전 1,2장을 강론하면서, 영국 국교에 반기를 들었다. 카트라이트는 장로교 정치 형태를 주장했다; 1603년, 제임스 1세(James I)가 즉위하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후손없이 죽자 영국의 튜더 왕조는 끝나고, 스튜어트 왕조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왕으로 즉위한다(제임스 1세). 제임스 1세는 모계로서 영국의 튜더 왕조의 피를 잇고 있었다.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의 즉위로 영국의 종교개혁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1604년 청교도들은 햄프턴 궁에서 제임스 1세를 만난 후에 크게 실망했다. 제임스 1세는 1604년에 “햄프턴 코트 궁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청교도들의 견해를 청취하

며, 영국 국교회 지도자들과의 공개 토론을 가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햄프턴 코트 회의(Hampton Court Conference)는 천인 청원(Millenary Petition), 즉 영국 청교도들 1000명이 서명한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1604년 1월 런던 근처 햄프턴 코트 궁전에서 열린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청교도들이 청원한 요구사항이 제임스 1세에 의해 모두 거절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긍정적인 일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성경번역 작업의 시작이었다. 이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 흠정역)이었다. 당시 물론 위클리프 성경, 윌리엄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등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 발간은 청교도들에게도 매우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1620년,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인(separatist puritans) 필그림 신대륙 플리머스에 정착하다; 1625년, 청교도를 싫어한 찰스 1세가 왕이 되다; 1628년, 윌리엄 로드(William Laud)가 영국주교(나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다. 윌리엄 로드는 비국교주의자들(nonconformity)을 쫓아내기 위해 시도하였다. 로드가 청교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이민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1630년, 존 윈throp(John Winthrop)이 많은 비분리 청교도들을(non-separatist puritans) 이끌고 메사추세츠 만으로 이주하다; 1643-1646년,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모여 예배모범,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이 작성되다; 1645-1646년, 올리버 크롬웰의 국회군이 왕의 군대를 무찌르고 시민정권이 종식되다; 1646년, 영국에서 감독제 교회 정치가 폐지되다.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당하다. 1649-1658년,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다. 크롬웰은 영국에 청교도 사상을 확립하다; 1660년, 찰스 2세가 즉위함으로 영국의 왕정이 복고, 영국 교회는 감독제가 시행되다; 1662년, 새로운 영국 국교회 공동 기도문(Anglican Book of Common Prayer) 시행됨과 동시에 2천명이 넘는 청교도 목자들이 목회지에서 쫓겨나다. 비국교인들은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학위를 받을 수 없어서 비국교 학원이 설립되다; 1688년, 윌리엄과 메리가 영국의 왕과 여왕으로 공포,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이 일어나다. 청교도들에게 설교와 독립 교회(Independent Church)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주다.

KHL0206@gmail.com

교회 역사상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청교도 사상이다. 청교도 학자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청교도 사상은 미국 문화의 근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종합시켰고, 뉴잉글랜드의 첫 3세대는 거의 청교도 사상에 의해 세워진 사회였다” 했다. 하버드의 청교도 전문가인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무신론자였지만, 청교도들을 사랑했다. 밀러는 또한 청교도 사상의 중심이 된 칼빈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밀러는 미국의 출발이 청교도 사상에서 시작이 되었고, 미국을 건설하는 힘도 청교도 사상에 있음을 알고 1930년대에 미국에서 청교도 사상을 부활하려고 시도했다. 밀러는 사람들에게 청교도의 탁월함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물론 페리 밀러의 주장은 우리 개혁주의 성경적인 관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페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밀러가 이해한 청교도 사상은 우리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가 청교도 사상을 높게 평가하고 많은 연구를 한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 실제로 페리 밀러 이후로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를 연구하게 된다. 미국에서 청교도를 주제로 한 박사 학위(Ph.D.) 논문도 대부분 밀러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청교도 사상이 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한데,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언약 사상이다. 청교도들은 신학적으로 항상 문제가 된 반율법주의(anti-legalism)와 율법주의(legalism) 사이의 긴장과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 관계를 언약(covenant) 개념을 통해 잘 설명한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특히 사회적인 거룩함(societal holiness)을 추구했다. 언약 사상은 청교도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개혁을 역동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상적인 기초가 된다. 그러면 먼저 청교도는 누구인가?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청교도의 기원과 청교도(Puritan)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학자마다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할 따름이다. 청교도와 청교도 사상은 영국 종교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1560년대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처음으로 조직화된 청교도 운동과 사상의 형태를 취했지만, 그러나 청교도 사상의 뿌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성경번역가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 휴 라티머(Hugh Latimer) 또한 토마스 비콘(Thomas Becon)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청교도 사상의 확립의 더욱 중요한 요인은 영국의 카톨릭 여왕 메리(Mary)가 개신교를 박해 했을 때에, 많은 영국의 개혁자들이 제네바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피난갔고, 이들이 제네바에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어떻게 보면 메리 여왕이 카톨릭의 칼을 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칼빈주의 입장에서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교도주의는 특별히 교회 운동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청교도들이 볼 때에 영국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청교도들은 구원론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속된 교회가 하나님앞으로 거룩한 성도의 무리가(the corporate holiness of Christians)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사상이 나중에 청교도들은 교회 언약으로 발전시켰다(Church covenant). 청교도들은 항상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적, 사회적인 거룩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체적으로(corporately) 하나님과 언약 상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월-금) 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예배: 오후 1:20 영어권(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 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아다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hel@hk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사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 기도: 오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세계선교회</h3> <p>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a.com / worldmissioncenter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h3>실비치 사랑교회</h3> <p>(Seal Beach Sp-Ri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 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8, Ce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가족원</h3> <p>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합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고령화 노인 여성 리더 사역: 1. 복음화 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사역 www.epifamily.org Tel: (213) 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일요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714) 446-6200,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 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강화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좋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c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 M 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일 예배: 오후 8:00(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g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히슬스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어장권이 임어지네" 오전 9:30 오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죽음을 기억하고 운명을 사랑하고 현재에 충실하라

무성한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 따라 가을이 오는 길목에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라틴어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는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제 책상 앞에 이 글귀를 써 놓고 그 의미를 되살려보곤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백마가 이끄는 전차 뒤에 탑승한 산 사람이 장군에게 계속 이 말을 새기도록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교훈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매일 아침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떠올리는 것이 삶에 더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 속에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행복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전부를 드린다 해도 얻을 수 없는 하루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Carpe diem,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1990년 개봉된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님이



외친 한 마디로 전 세계 젊은이들 열광하게 한 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경구를 마치 성경구절이나 되듯이 새책을 사면 적어두곤 했습니다. 저의 시간철학을 '하루살이'라 부르면서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고 한날한날 살아가지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가끔 젊은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현재를 즐겨라, 또는 한 번뿐인 인생을 마음대로 살라는 식으로 번역되어 그 진정한 의미가 몸살을 앓곤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흘러간 물과 같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매일 순간을

가치있게 살아간다면 인생은 참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할 것입니다.

셋째는 Amor fati,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의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말로 '운명'이라고 불립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을 끝없는 권력의지를 통해 결코 이룰 수 없는 욕망의 샘에서 마실 물을 찾는 인간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굴복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결국 "네 운명을 사랑하라"는 명제에 도달합니다. 니체의 삶과 이 교백의 근거는 기독교 가르침과는 다르지만 이 말 자체는 참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놓

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해도 모두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 앞에서 니체도 헤밍웨이도 허무를 노래했지만 신자에게는 그 연약함이 전능자의 자비를 구하는 통로이며 하늘의 은혜를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날은 흐르는 물처럼 단 한 번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순간마다 소망이 충만하며 아직도 호흡이 있다면 사명이 있기에 의미 깊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자연의 영감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preachchrist@kcpc.org

사·모·칼럼



허영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응시

매일 아침이면 집 주위에 있는 산책로를 걷는 게 수년간의 일상이 되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개를 데리고 나오는데 한 마리, 두세 마리, 어떤 이는 열 마리를 줄에 묶어 다니는 진기한 광경도 볼 수 있다. 가끔 저들은 왜 개를 좋아할까 궁금해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개는 말을 못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개가 그들의 감정을 주인에게 마구 표현하고 말대꾸한다면 주인이 개를 이해할 리는 만무할 것이다. 사춘기 아이들이 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역시 자녀들의 말대꾸이기에 그러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훈련된 개는 주인의 말에 절대복종한다. 더구나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겨주고 순수한 눈빛으로 늘 주인을 응시하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남편을 도와 한 교회를 건강한 도양으로 개간하며 세워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과의 싸움의 연속이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고스란히 그것을 내 안에 담으며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담임 목회를 하고 7년 차가 되었을 때 우물 증세가 찾아왔다. 허탈감과 무기력감으로 슬픈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때 이런 교백을 하나님께 드렸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도 동일한 교백을 내신 것을 보았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요한복음 5:30).

예수님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절대복종하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응시하며 그 뜻이 지배하는 삶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의 모본은 또 다른 시련 앞에 있는 나를 깨운다.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말이다. 문득 지나온 날들을 반추해 본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며 두려움과 싸워야 했던 일, 억울함의 깊이가 너무나 커 전국 가고 싶다고 평평 울던 일 등 위장에 경련을 일으키는 많은 사건들을 돌이켜보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 상황을 해석할 때는 더욱 쓰라린 가슴으로 웅크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숨 막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응시할 때는 마음의 평정을 다소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부르심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대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응시하며 담대하게 반응하고 그 앞에 겸손과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야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보호막이 되시고 끝내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재판에 처는 사람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나 여호와와 종들이 받을 몫이다. 그들의 승리는 내게서 나온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쉬운 성경, 이사야 54:17).

yanghur@gmail.com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를린제일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욕장로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늘기쁜교회,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빛과소금교회, 새벽별주님교회, 은누리장로교회, 윈즈장로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안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인 교회.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바람잡이 인생”

인생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인간의 생명의 조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은 코의 호흡에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셔서 생동하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은 호흡, 곧 바람입니다. 영혼의 생명의 원동력이 된 성령도 바람으로 표기됩니다. 구약의 성령은 바람(루하)으로 표시됩니다. 신약의 성령은 바람(프뉴마)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바람입니다. 사람은 살아 갈 동안에 바람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허파에는 늘 바람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람인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집념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

의 모든 노력을 바람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잡아 보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없고 손에 잡은 바람이 다 빠져나간 듯이 모두가 다 바람처럼 사라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바람잡이 몸짓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키며 이리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전 1:6) “그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전 2:11)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 4:16) 인생의 성공도 바람입니다. 누구나 성공을 위하여 달음질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란 것을

손에 잡아 보면 어떤 의미에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람임을 알게 됩니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사라져 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행복도 바람입니다. 행복에 겨운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 하지만 그것도 역시 바람에 불과 합니다. 인생의 사랑도 바람입니다. 바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다가오는가 싶으면 저 멀리 사라져 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손에 느껴지지만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 사랑, 연애, 기쁨의 감정들은 바람과 같습니다. 절대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일생 허덕이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

니다. “바람잡이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바람 아닌 영원한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감언이설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는 바람잡이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바람잡이 인생”의 허무한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 진리의 말씀과 주님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cyd777@hotmail.com

‘하나님 카드’ 를 함부로...

(2면에서 계속) 3. 책임 회피

때때로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나님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다. 당신이 바라는 목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림으로써 상황에 따라서는 규칙을 바꾸거나 대다수의 반발까지도 무시할 수 있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카드가 그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 사람에게 정면으로 대응한다면, 그는 이렇게 반발할지도 모른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간섭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맞나 틀리냐를 따지는 겁니까?”

이런 식의 반론은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서로를 검증하고 바로잡는다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다(마 18:15-20).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그 음성(행 9:26-28; 11:1-18).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 또는 책임에 대한 면죄부 주장은 바른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카드를 사용

하는 경우라면 기억해야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활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4. 실패가 두려워서

수많은 선택이 주는 압박감과 과거의 실패가 주는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승인”이라는 명확한 도장이 찍히지 않는 한 여간해서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망설이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면 기본이야 좋겠지만, 인생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의도와 현명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이나 실패에서 구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약점까지 활용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PR 요원이 아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걷다 넘어지는 양과 함께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양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명확성, 신비함, 겸손

나는 부주의하게 하나님 카드를 사용한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그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데

에 또는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검증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으로도 살고 싶지 않다.

순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짜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대담함과 소심함이라는 양극화된 함정을 피하면서 하나님 카드에 현명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성과 신비와 겸손이라는 세 가지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명확성: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분명한 계시이다. 우리 손에는 이미 많은 양의 귀중한 보석이 들려있다. 따라서 굳이 새로운 “영적 금맥”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신비: 하나님은 무한하고 우리는 유한하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사고 체계라는 한계 속에 넣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인지적 한계의 벼랑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랜드캐니언을 백만 배 합친 것보다 더 광대하시다. 선입관이라는 한계 속에서 사는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

케네스 버딩(Kenneth Berding)은 성경 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명확한 방식에서 가장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의 글은 전체를 다 읽을 가치가 있다). 다음은 그의 결론이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특별한 인도를 경험할 거라는 성

경의 약속은 없다. ... 그렇더라도 진심으로 성경적인 결정을 하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공감을 허용해야 한다. 때로는 전혀 모호함이 없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어떤 때에는 충동과 속삭임으로 때로는 재정립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한 정의와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지만, 성경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의 절대적 언어가 아니라 부드러운 고백이다. “성령과 우리는 ... 더 이상 아

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행 15:28).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약 4:13-15).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천천히 말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까?

by Will Anderson, TGC

캠퍼스로 돌아온 대학생들..

(3면에서 계속)

교회가 이를 실행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이든 날짜를 정해 대학생들을 위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식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학생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교회 친교실로 초대하고, 식사 후 여분의 음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남은 음식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식사를 통해 학생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5.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세요.

지역 교회에 헌신한 대학생들조차도 새로운 곳에서 연결되고 연결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누구든 소속감을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몸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학생들에게 해당됩니다. 자유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일정이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섬길 방법은 항상 다양하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원할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도록 하십시오. 예배 안내를 섬기고 싶다면, 유아부에서 교사로 섬기거나 찬양대에서 찬양, 악기 연주로 섬기고 싶다면 누구에게 얘기하고,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학생들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쉽게 교회 섬김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도록 개인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청소 당번이 있다면 학생 한 명을 초대하여 함께 의자를 치우고 테이블을 닦도록 하십시오. 기도회에 갈 예정이라면, 혹시 개인적으로 함께 하고 싶으신지 물어봅니다. 개인적인 초대는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교회에 들어오는 대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소그룹이나 주일학교 반에서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봉사하거나, 집에 있거나, 일요일 아침에 만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웃에 있는 대학과 캠퍼스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학생들을 섬길 때, 그들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대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들은 곧 여러분의 교회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잘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By Stephanie Formenti, TGC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3)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교회</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매주(목) 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cross@yahoo.com 6050 Kirby Rd., Little Rock, IL 60846</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다민족찬양집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892 3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2-1512, Fax: (215) 942-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벨렐교회</p> <p>담임목사: 백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E. Vetera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아, 청년, 장로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3) 435-4579, www.bostonl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748</p>
<p>센터빌 한인장로교회(PCA)</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581-9235, www.koreanc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알칸사 제자교회</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 제자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백용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화-토)</p> <p>Tel: (703) 841-4447, www.mpcav.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영양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세례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636-6675, www.tacomacc.org 9424 S. Yelkum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lchpress@earthlink.net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전 미주 연합 최초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설명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연다

“장애인과 함께 가는 사역 위한 차세대 리더 양육 중요”

전 미주 연합 최초 2023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차세대 리더양성’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20일(금)과 21일(토) 양일간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에서 열린다. 이에 대한 설명회가 8월31일(목)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에서 열렸다.

이영선 목사는 “그동안 한인 교계에서 크고 작은 장애사역 컨퍼런스는 종종 열려왔지만 주류사회와 관계된 장애사역 컨퍼런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컨퍼런스 때 열리는 강의를 듣게 되면 장애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ANC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사진 컨퍼런스 ‘Disability 101 포용적 장애 사역’에서는 지지플레이 하우스 디렉터 등 29년 넘게 장애인과 그 가정을 위한 사역에 몸담아 온 제니 본 토벤(윌로크리교회)이 교회 내 포용적인 장애사역을 하기 위해 경험과 토대로 한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공개한다. 참가비는 별도 40달러로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오후 6시 메인 컨퍼런스는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 담임), 에릭카터 박사(베일러 대학교)가 각각 개회연설을 한다. 기조연설에서는 새들백교회 공동창립자이자 릭 워렌 목사의 아내 케이 워렌 사

모의 설교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 21일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주류 교회 및 한인교회 15인의 장애사역 전문가가 ‘차세대 장애사역 리더양성’과 ‘포용성’ 등 전반적인 장애사역의 핵심이슈에 대해 패널토의와 함께 12개의 주제 강연을 발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초로 전 미주 주류 교회와 한인 교계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장애사역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큰 의미가 있으며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영선 목사는 “CDC(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3-17세 사이 발달장애인은 약 17%에 이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앞으로는 교회가 좀 더 포용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가는 사역을 고민하고 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차세대 리더 양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 참가비는 개인 신청 시 100달러이며 교회 및 단체 신청 시 2인기준 200달러로 추가 인원당 50달러가 추가된다. 하지만 대학생 및 신학생에게는 20% 할인하여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마감은 9월 30일. 봉사자, 신학생, 학부모 등 장애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타주에서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적절한 금액의 숙박 옵션 및 셔틀을 준비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714)484-119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제9회 찬양선교 음악회 열린다

“찬송가 보급과 찬양사역자, 찬양팀을 돕고자”

미주찬양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는 제9회 찬양선교 음악회를 오는 10월8일(주일) 오후 6시30분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최형규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찬양팀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이재근 목사는 “찬양선교의 목적은, 첫째, 찬송가 보급에 있다. 요즘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예배순서에 찬송가가 1곡도 제대로 불리지 않고 유행가성 가스펠곡이 판을 치고 있어서, 예배찬양에서 신구세대간 갈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 말슴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찬송가 보급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찬양사역자(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연주자)와 찬양팀들을 돕는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찬양사역자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연주활동도 중단되고, 레슨도 끊기고, 학교, 합창단, 교회에서의 사례도 받지 못해서, 은행대출 받거나, 피자배달, 일식집 종업원, 양로병원일, 자바시장 창고에서 알바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으로 찬양사역이 회복되려면 2-5년이 걸린다고 하여, 찬양사역자와 찬양팀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남가주 장로성가단, LA남성선교합창단, 오렌지 미션콰이어, 남가주 장로 중창단, LA 목사중창단, 소노러스 심어즈가 출연하며 특별 출연으로 바리톤 장상근 씨가 출연한다.

▲문의: (562)714-0691
(정리: 박준호 기자)



기독실업인회 제2회 장학금 수여식 열려

“선을 심고 생명을 심는 일에 앞장서자”

미주한인기독실업인회(이하 KCBMC)서부총연합회가 주최하고 KCBMC남가주연합회가 주관한 제2회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8월 26일(토) 오후4시 예스몬테소리학교(최혜나 원장)에서 열렸다.

오현근 부회장(남가주연합회) 사회로 열린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1부 예배 2부 장학금 수여식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1부 예배에서 장학위원장 안신기 목사가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안신기 목사는 설교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상식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창조원리로서 선을 심고 생명을 심는 일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안신기 목사는 이어 인사말씀에서 “바쁜 경영일선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원리를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일터를 복음화하는 기독실업인들을 격려하고 경영인들이 차세대를 격려하고 리더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장학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강승태 회장(KCBMC 서부총연

합회 총회장)은 “작년에 이어 2 번째로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후배를 위해 받은 사랑을 나누는 리더가 되라”고 축하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Joshua 전도사는 “장학금을 허락하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다고 전하며 차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일꾼을 키워가는 가교가 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황선철 직전 총회장의 축사, 제임스 하 사장(가든그로브교회), 신용 회장(OC 기독교전도연합회)이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에스터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영대 목사(연복회 이사장)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Lauren Ahn, ▲Chong Lim, ▲David Shin, ▲Eunsung Chu, ▲Johnson Lee, ▲Joshua Suh, ▲Ryley park, ▲Samuel Kim, ▲Sungmin Kim 등 총 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기독실업인회(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비전으로 일터선교를 하는 크리스천 경영인들의 모임이다.

(기사제공: KCBMC남가주연합회)



기독실업인회가 주최한 제2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자들



소망 소사이어티는 메모리 서포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소망 소사이어티 메모리 서포트 프로그램 시작

“실버치 레저월드에서 거주하는 한인들 대상”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메모리 서포트 프로그램을 지난 8월 29일 화요일부터 실버치 레저월드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메모리 서포트 프로그램은 알츠하이머 오렌지카운티(AlzOC)의 파트너로, 한국말로 뇌 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가족 간 병인 교육과 지원, 사전의료 지시서, 집 안전 평가, 시니어 이상 행동시 대처법등을 제공한

다. 앞으로 3년 동안 레저월드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소망소사이어티에서 10년 넘게 봉사하고 있는 박종리 교육부장이 케어 팀과 행정리더로, 레저월드 거주자이며 소망소사이어티의 평생회원인 박경순, 황경 씨가 이 프로젝트에 커뮤니티 리더로 참여한다.

메모리 서포트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지난 8월 29일 ‘치매 친구들(Dementia Friends)’교육이 있었다. 치매 친구들은 치매가 없는 사람들이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주변에 인지 장애를 겪고 있거나 치매가 있는 분들을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주며, 치매가 있어도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받아들이고 돕자는 내용이다. 이날 총 60여명이 넘게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소망소사이어티와 AlzOC는 9월 5일 레저월드 한인 커뮤니티 교회에서 공식 협약식 맺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서부교계 게시판

엔데믹 목회 드로잉 세미나

씨드선교회가 주최하는 엔데믹 목회 드로잉 세미나가 18일(월)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와 21일(목)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송동호 목사(다하나 국제교회 목사, 나우미션(BAM전문 파송단체) 대표)이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지역교회 담임 및 부목회자와 사역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등록비는 \$50(강사저서 증정 및 점심식사제공)이다.

▲ 문의: (562)926-4700, admin@onlyinlove.org

나성금란교회 창립41주년 감사예배 및 김배선 담임목사 파송감사예배

나성금란교회 창립41주년 감사예배 및 김배선 담임목사 파송 감사예배를 10일(주일) 2부예배 시간(오전 11시)에 갖는다.

▲ 문의: (310)973-5106

남가주주님의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음악회 및 감사예배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최현규 목사) 창립 40주년 감사음악회가 16일(토) 오후 6시30분에 열린다. 또한 17일(주일) 오후 4시에는 본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다. 이날 은퇴찬 하식도 함께 갖게 된다.

▲ 문의: (626)965-9191

또감사선교교회 말씀성회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 440 Shatto Pl., 4th fl, Los Angeles, CA 90020)는 교회 이전을 기념하여 특별말씀성회를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저녁 7시에 갖는다. 이번 성회의 강사는 김인식 목사

▲ 문의: (323)262-9191

ARC 앵커리트리센터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운영하는 ARC 앵커리트리센터가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한다. 자격은 세례교인, 미국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리고 시설관리업무 유경험자이며 근무조건은 수당관 사택제공(유틸리티 포함), 업무차량 제공이며 사례비는 \$2,500 + α(정확한 사례비는 면담 후 확정)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anchor@anconnuri.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213)820-5161



어노인팅 초청 밴쿠버 찬양집회가 성황리에 열렸다(사진=캐나다크리스천신문)

밴쿠버 청년들이 한자리에, 어노인팅 초청 찬양 집회 성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자”

어노인팅 초청 밴쿠버 찬양 집회가 8월26일(토)과 27일(주일)양일간 캐나다 광림교회와 밴쿠버한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첫날 26일(토) 캐나다 광림교회에서 열린 저녁 7시 집회는 청년들로 가득 찼다. 27일(주일) 밴쿠버한인장로교회에서 열린 집회에도 20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번 찬양집회는 밴쿠버한인장로교회(김대희 목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밴쿠버교회협의회(회장 김시동 목사), 밴쿠버목사회(회장 김성문 목사)를 비롯해 코람데오재단(정문현 장로), 캐나다광림교회(최신호 목사), 위미니스트리(홍지민 목사) 등 많은 곳의 후원으로 열리게 되었다.

어노인팅 찬양 집회는 인도자 소병찬 목사와 함께 보철 양민호 간사, 건반 한경숙 간사, 드럼 서광석 간사, 기타 정성권 강도사가 집회를 위해 밴쿠버를 방문했으며 찬양 집회에 앞서 밴쿠버 지역 한인 교회 찬양팀을 위한 워크숍을 3일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16개 교회 131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3일간 진행된 워크숍은 첫날 소병찬 목사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 각 파르별 세션들이 참여자들에게 반주 노하우 등 찬양팀에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셋째 날은 파르별 세션에 이

어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5개 교회의 찬양팀이 한 곡을 선정해 교회에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찬양을 하면 피드백을 통해 개선할 부분과 교회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소병찬 목사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말할 때, 세상의 능력이 없다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고, 세상의 힘이 없다고 우리를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평가 할지 모른다. 때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보잘 것 없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녀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소망한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소병찬 목사는 집회가 모두 끝난 후 “오랜만에 밴쿠버를 방문했는데, 정말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에 놀랐고 인도하며 제가 눈을 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저희가 힘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같다. 다시 한번 만날 날을 기약하며 서로가 있는 위치에서 중보하고 열심히 예배하길 기도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 캐나다크리스천신문, 정리 박준호 기자)



탈북민교회 노회 가입 문턱 낮춘다...

예산 기준 완화, 탈북민선교대회 열고 정책 제안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 소속 탈북민 교회의 노회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 교회 및 신학도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총회 이북노회협의회(회장 최태협 목사)는 4월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김주용 목사)에서 탈북민선교대회(사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북민교회의 노회 가입 조건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북노회는 남북 단위로 월남한 목회자들이 남

한에 조직한 피난 노회로 예장 통합은 평양·평양·평양·용천·함해노회 5개 이북노회를 두고 있다.

이북노회협의회는 탈북민교회에 한해 1년 예산에 대한 노회 가입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노회마다 보통 1년 예산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락하는데 탈북민교회가 이런 제정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탈북민교회는 가입하자마자 노회 내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탈북민이 신학생일 때 인턴교육전도사로 목회를 경험할 수 있다.

최태협 목사는 "예장통합 북한선교연구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도사(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싶어도 청빙을 받기 어려웠다는 탈북민 목회자가 62.5%에 달했다"며 "다양한 탈북민 목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과 함께 북한선교의 꿈을 꾸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유학 왔다가 신학 결심... "일본인 유학생 섬기는 법은"

오류교회 일본어 예배부 캠퍼스 전도

"혹시 일본에서 오셨나요?" 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캠퍼스에서 수나사카 유키(28)씨가 일본인 유학생에게 전도지를 전하며 인사를 건넸다. 전도지에는 "오는 9일 '웰컴 파티'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키씨가 "다다메시(공짜밥)"를 먹으러 오라"고 할 때 유학생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다.

유키씨는 서울 오류교회(김은호 목사) 일본어예배부 소속 청년이다. 2017년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유키씨는 올해 신학 공부를 결심하고 올 2학기부터 헛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에서 공부 중이다.

이날 캠퍼스 전도엔 유키씨를 비롯해 교회 일본어예배부를 지도하는 박현식 오류교회

부목사 등 4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전도지 100장을 이 대학 국제관에서 강의가 끝난 뒤 나오는 유학생들에게 30분 만에 전했다. 전도지를 받은 유학생들은 유학생 모임 사진을 유심히 살폈다. 가만히 서서 앞뒤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학생도 있었다. 일부 유학생들은 손사래를 치거나 무시하고 지나치기도 했다. 유키씨는 "일본인들은 거절을 잘 못 하는데 MZ세대는 조금 다르다"며 웃었다. 올 1학기에 시작한 이 교회의 전도 활동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다. 일본인 유학생 2명이 교회 일본어예배에 등록했다. 이들은 세례까지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교회와 계속 교류하고 있다. 교회가 유학생을 섬기는 원칙은 단순하다. 문화탐방이나 언어교류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예배 참석을 권하지 않는다. 복음은 좋은 관계가 된 뒤 개인적으로 전한다.

박 목사는 "최종적으로 유학생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서도 "우리는 먼저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려 한다"고 전했다.



CTS·CBS '저출산' 공동캠페인

한국교회 한목소리 이끌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 공동총재 권순웅·김태영·오정현·이순창·이철·장종현 본부장 감경철)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20만 명(204,9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부터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전국 주요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앞장서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함으로써 20

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아동 돌봄을 위한 종교시설 활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명운동과 함께 CTS와 CBS는 오는 18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 방안 모색'을 주제로 우리나라는 2021년 데드크로스(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하락하는 것) 현상이 나타나며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인구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

이다. 영국의 인구학자 데이비스 킬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현재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2070년에는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돌봄 네트워크 공백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수는 4만238개였으나 2022년에는 3만923개로 5년 만에 9315개소(23.1%)나 감소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의 수도 55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대본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종교계가 나서 섬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출대본 본부장 CTS기독교 TV 김경철 회장은 "영유아 돌봄을 하기 위해 교회 공간을 활용하려면 제도적 어려움이 많다.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터로 활용하고 주말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설 자리 없는 교회... 기도가 희망이다"

기감, 100년 기도운동 캠페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100년기도운동본부(본부장 백용현 목사)는 지난 1일 대전 서구 한빛교회(백용현 목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사

진). 기감의 100년 기도운동은 '기도의 끈'을 끊임없이 이어가자는 교단 차원의 캠페인이다. 교회 여건에 맞게 한 사람이 2-3시간씩 할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24시간을 기도하는 집

회를 열어도 된다. 100년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취지를 담았다.

100년기도운동본부장 백용현 목사는 "100년 기도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100년 기도운동은 감리교회의 마지막 출구"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철 기감 감독회장은 "질병과 재앙 그리고 냉담한 사회적 반응 속에 교회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며 "우리의 기도가 감리회의 희망이 되고 다음세대를 세워갈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기도운동은 올해 기감에서 진행하는 하디 선교사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다. 기감은 기념대회를 기점으로 모인 교단의 에너지를 기도운동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백 목사는 "전국에서 이어질 기도운동은 하디 선교사를 소환하는 것을 넘어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CM 출범... 기독교 음악 사역자 협력·연대 다짐

하덕규·헤리티지 등 200여명 연합, 건강한 음악 환경 만드는 데 앞장

한국기독교음악협회(KCCM)가 4일 서울 용산구 은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연합체로서 출발선에 섰다. 한국 크리스천 음악계의 선사자뿐 아니라 다음세대 사역자들 또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근 3년여간 고민한 결과물이 정식 출범한 것이다.

발대식에는 시인과총장 하덕규, 헤리티지, 소리엘, 강찬, 수상한 거리,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등 크리스천 아티스트 200여명이 참석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1부 '경배와 찬양'에 이어

진 한국기독교음악협회 발대식에서는 초대 공동회장을 맡게 된 안민 전 고신대 총장과 찬양 사역자 송정미가 메시지를 전했다.

안 회장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순종을 고백하며 섬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사역자들을 홀로 두지 않고 동역의 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화 전쟁의 시대를 사는 지금, 거룩한 용사로서 다음세대를 위해 맞서 싸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권면했다. 송 회장은 "사역자 간 소통 창구가 없고, 서로 돕고 고민을 나눌 기회가 없었

던 과거를 딛고 연대를 통해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독교음악계는 한국교회 부흥기를 이끌었던 1세대 사역자부터 워너비, 제이어스 등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사역자들까지 찬양 사역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했지만, '사역 페이' '소명 페이' 논란이 여전한 만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번 발대식이 가수와 작곡가, 프로듀서는 물론 음반 제작자, 교회음악 교수, 공연기획자, 저작권 전문가 등 기독교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아우르는 연합체로 태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KCCM은 앞으로 찬양사역자와 업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독교문화예술인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저작물을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기독교 아티스트 발굴 지원에도 힘을 계획한다.

KCCM 준비위원으로 활동해 오다 이날 정회원이 된 김효식 헤리티지 단장은 "KCCM이 한국 기독교 음악을 이끌어 왔던 수많은 사역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영감이 넘치는 기독교 음악이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번째 생일 맞이한 SIAFF...사회적 아픔 담았다

제2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SIAFF) 오는 14일 개막

기독교 가치와 영화의 결합을 보여준 '제20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SIAFF)'가 오는 14일 개막한다. 올해 영화제가 20번째 생일을 맞이함에 따라 주제를 'History' (역사)로 정했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문화선교의 방향성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다. 슬로건은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으로 정했다.

제20회 SIAFF에서는 총 15편의 작품이 영세에 걸쳐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모든 영화마다 씨네토크가 준비돼 있다. 단순 관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취지다.

배혜화 SIAFF 집행위원장은 "20회를 맞이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파노라마처럼 아쉬웠던 점이 스쳐지나간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상미 SIAFF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드라마, 영화 등의 콘텐츠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트렌드가 됐다"며 "하지만 기독교인은 문화 매체에 복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SIAFF가 그 터전이 될 것 같다"면서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확장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교회가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개막작은 '지저스 레볼루션'이다. 미국 기독교 영화계의 선두주자인 어윈 브라더스가 연출한 영화로, 1970년대 미국 10대 히피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올해 초 개봉 당시 미국 박스 오피스 3위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폐막작으로는 일본의 '마이 데디'를 선보인다. 일본 영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영화다. 작은 교회 목사인 '카즈오'를 통해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냈다.

올해는 특별히 '다문화' '이민자' '난민' '생명 존중' '입양'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과 아픔을 그린 작품이 주를 이룬다. 덴마크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 입양아가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조용한 이주'와 쿠르드족의 일본 이주 여정을 그린 '나의 작은 나라', 죽음을 앞둔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은 '커밍 홈 어게인' 등이 초대됐다.

아울러 SIAFF는 영화제 최초로 부부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배우 리키김, 류승주가 주인공이다. 개막식은 14일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 화합홀에서 진행되며, 이외에 모든 작품은 필름포럼 1관에서 상영된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8)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누가 나의 팀이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혼자서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연합하는 일은 우리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신실하다고 알려진 한 목회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무엇이 그렇게 외톨이를 만들게 하였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을 만한 일이 그렇게 함께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와 방언과 문화와 민족을 초월하는 거대한 나라이다. 아무리 큰 대형교회라 하더라도 어느 한 지역교회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다 품을 수 없으며, 아무리 작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DNA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모습 속에서 참다운 생명의 살아있음이 증거 되는 것이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누가 우리의 팀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들이 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선교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가장 가깝게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을 위해 한 지역으로 보낸 선교사들이 당연히 팀워크를 해야 한다. 만일 팀워크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국제단체에서는 함께 동일 장소에서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모습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팀사역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기의 사역

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국선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정려되어야 할 일이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한 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더라도 유기적인 팀워크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 그것은 한 지역에 상주하는 선교사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서로 사역을 드러내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서도록 각 지역의 선교사회나 국가의 선교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선교지마다 한인선교사들은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있다. 이렇게 독특한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한인들이 조금씩 더 양보하고 서로를 품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지역에서 사역하는 시니어들의 책임이 크다.

시니어선교사들이 화해의 제물이 되어 모범적으로 화합하여야 한다. 오래된 선교사들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할 때는 후임으로 유입되는 선교사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고 연합을 깨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한다. 만일에 어느 선교지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제라도 시니어 선교사들은 화합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고 화해의 주님을 배우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을 상상이나 하겠는가.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먼저 배운 시니어 선교사들이 서로를 포용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한국선교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 분명하다.

선교의 연합을 위해서는 선교의 방법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른 점과 틀리는 점을 구분하여

야 한다. 다음은 받아들이지만 틀리다고 생각될 때에는 서로 대화를 통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나의 방법만이 옳다는 교만은 많은 선교사역을 더 어렵게 하고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는 가장 큰 잘못을 범하게 하는 주범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다양한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두 옳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나의 방법만이 옳다고 할 때에 어떠한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모슬렘들을 향한 선교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상황화의 접근방법에 극단적인 상황화로 극한 내부자운동의 찬성론자와 상황화 자체를 받아버리고 극단적인 투쟁론자로 분리될 수 있다. 극단적인 투쟁론자들은 모든 모슬렘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슬렘에 대한 혐오를 충동적으로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입장에서 모슬렘의 거의 모든 입장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원리의 비틀림으로 보여지

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나온다. 그러나 양쪽의 모두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고 모슬렘선교의 필요성을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반 성도들에게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오히려 선교의 열정을 식게 하며, 근본적인 선교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양쪽의 모두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결국은 선교를 막으려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일은 특히 북한선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조심하며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급된다면 먹을 것을 공급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 선교를 접근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물건이나 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북한정권의 봉고를 위

해 힘써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서로를 존중하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교사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선교사들 가운데 소위 “잘나가는” “유명한” “많은 교회의 초청을 받는” “모금을 많이 해가는” 선교사가 주위에 헤쳐져 나타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초청이 잦아질 때에 선교사 본인은 극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들이나 단체들이 “유명해지는” 선교사를 초청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 단기 간에 많은 간증을 하고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사역을 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에서는 이런 일반선교사들의 비판을 시기나 질투로 하찮게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회적으로는 누군가 산뜻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목에 뜻으로 자주 초청을 받게 된다. 자주 그렇게 초청을 받다 보면 선교사도 연약한지라 조금은 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정직한 보고나 간증이 나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가 많은 모금을 하게 되면 이 재정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책무성을 가진 단체가 없을 경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일들은 같은 지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로 드러나게 된

선교사 가운데 극소수는 단체에 속하지 않고도 신실하게 선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특이한 경우를 일반화하지는 말아야 한다. 교회의 선교가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유명한” 선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지역선교사들 다수의 비판을 무시해버리는 것도 건강한 선교의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폐를 끼칠 수 있다. 개인 선교사들에게는 권리를 받지 않고 무책임한 행동을 권장하는 듯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더욱 연합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연합은 한국인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부름받은 선교사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시니어 선교사들 가운데서 오랜 친분을 쌓은 타국출신의 선교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주 교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교사회의 임원들이 주기적으로 앞서서 타국 출신 선교사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고 선교사들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타국 선교사들이 알고는 있지만 긴밀한 협력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듣는다. 한국 선교사들은 이런 지적을 겸손하게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비서구권의 국가에서 파송되어 나오는 신입선교사들에게 한국선교사들은 손을 내밀어 의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미주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관계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겸손히 섬긴다면 선교공동체에 큰 유익을 줄 것이다.

선교사들의 연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선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인 선교사들이 완전한 팀을 이루지는 못한다고 해도 서로가 팀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팀이” 작동되는 날이 오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 17:11)” 라고 기도 드린 것이리라. 한국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팀워크를 기대하며,
dr.yongcho@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7강(신명기 27-34장) 모세의 3차 설교를 중심으로(2)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피의 언약’ 외에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말을 전합니다(신 29: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신 29:4). 비록 그들의 광야 40년 기간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넉넉함을 주지 아니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심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었습니다(신 29:5,6).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행통할 것입니다(신 29:7-9).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토록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신 29:10-13).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뿐 아니라 이곳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신 29:14,15).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며 평

안을 바라는 자들을 응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런 자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것입니다(신 29:16-20).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재앙을 당하고 질병이 유행하며 결실함이 없고 황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왜 이렇게 노하셨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신 29:25,26)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을 알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 감추어진 일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행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신 29:27-29).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신 30:1,2). 그리하면 하

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긍휼히 여기사 흠으신 모든 백성을 모아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신 30:3-5).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침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시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자녀와 가족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되 그들을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입니다(신 30:6-10).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모세는 지금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어렵지도 멀지도 않은 말씀이며 매우 가까워서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므로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신 30:11-14). 그리고 다시한번 ‘생명과 복’ 그리고 ‘사랑과 화’를 그들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신 30:15-18).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고 ‘내가 생명과 사랑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라’고 합니다(신 30:19,20).

hfamily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마귀가 수시로 와서 시험하는가? (마 4:1-4) 찬 342장

마귀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가? 마귀가 나에게도 수시로 나타나서 시험할 수 있음을 아는가? 예수님께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와서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미움, 분노, 불안, 시기, 교만의 생각들을 품으면 마귀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주님의 인격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서 마귀의 인격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는가? 에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 위함이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두 인격 중 어느 인격을 누리고 살 것인가?

화 신령한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산다. (마 4:4) 찬 546장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음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 몸을 위하여 먹어야 하고, 내 영을 위하여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 몸의 양식은 입을 통하여 배로 채우는 것이며 내 영을 위한 것은 생각하는 것을 통해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죄의 생각을

많이 하여 마음에 채우면 마음은 병들게 되고 자신을 멸망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겁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열심히 신령한 양식을 부지런히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

수 주님을 포기하겠는가? (마 4:8-11) 찬 86장

나의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다고 확신하는가? 주님은 이 땅에서도 복이요 살아 계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지금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주님을 포기할 생각이

있는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에 주님을 높이며 끝까지 주와 함께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목 나에게 영원한 복이 있는가? (마 5:1-12) 찬 435장

나에게 복이 있는가? 일시적인 복보다 일평생 복이 귀하고 영원한 복이 가장 귀한 복, 천국에 가도록 하는 복이 귀하다. 인생의 길에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이 나에게 복이다. 더 나아가 나를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 자신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다. 물질은 나를 사랑함이 없다. 세상이 나를 사랑함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것일 뿐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참된 복이다. 나는 과연 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마 5:11-12) 찬 412장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죽음의 순간을 통하여 천국에서 살 것을 알고 준비하고 사는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사는가? 오늘 이곳에서 뿌린 씨앗이 그곳에서 거둘 것을 알고 사는가?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며 산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썩지 않는 상을 받는다.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

고 피해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살았던 삶에 주인이 그때 귀한 영광의 상을 주신다. 인생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주인이 다 아시고 주인이 증인이시다. 그 날에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자로 서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고 살아가 (마 5:13-16) 찬 323장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증거 함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산다. 소금이

맛을 잃고 촛대가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가치가 없듯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서 죄가 나타나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받은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교회음악 이야기(42)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어찌 찬양 안할까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미국의 교회사를 보면 2차 대각성 부흥 운동(1790-1840)은 1차 대각성 부흥 운동 때와는 달리 교단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미 서부 지역으로, 그리고 당시 아시아의 중심 나라들인 중국, 인도, 일본 등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이 선교 국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차 대각성 부흥운동(1850-1900)이 되어서야 한국이 선교 국가로 지정되었고 이때 공식적으로 두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885년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가 그해 4월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19세기 후반에는 이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활발하게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찬송가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찬송하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어찌 찬양 안할까, How can I keep from singing)”는 19세기 후반에 일본의 초교과 목사인 사사오 테쓰사부로(T.Sasao;1868-1914)가 작사한 곡으로 당시 일본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들에서 이미 찬송하였던 곡입니다. 이 곡은 원래 미국의 집례교 목사요 작곡가인 로버트 로우리 (Robert Lowry, 1826-1899)가 쓴 곡입니다. 그가 1869년에 그의 노래집 'Bright Jewels for the Sunday School'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곡입니다. 이 곡이 발표된 당시에는 미국의 3차 대각성 부흥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복음으로 인한 소망이 중심 가사가 되어 복음 찬송이 많이 작곡되어졌고 그것이 불리며 미국 교회들에서는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이러한 영향으로 이때 만들어졌던 복음 찬송을 당시 선교사들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찬송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 교회사에 있어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때 만들어졌던 찬송들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남아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즐겨 찬양하고 있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작곡자 로우리 목사님은 위의 내용을 가사에 중심으로 삼아 찬송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일본의 사사오 목사님이 1897년에 로우리 목사님이 작곡한 선율에 맞추어 원제목을 그대로 둔 채 가사를 페리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는 찬양을 드러야 할 당위성을 원래 저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가지로 나누어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복음으로 인한 승리, 2절에서는 말씀을 통한 축복 그리고 3절에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찬양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곡의 의도대로 어찌 찬양 안 할까 (How Can I keep from singing)라는 절대성을 강조하며 찬양을 통한 고백에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 곡이 한국 교회로 처음 소개된 것은 성결교회 최초의 찬송가인 “신증복음가, 1919”에 소개하였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음을 통한 축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미국의 교회사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 민족은 아시아의 중심 국가 중 가장 나중에 복음이 전파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온 세상을 선교지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 국가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일에 관한 여러 분야에서 빨간불이 켜지며 경고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란의 극치를 살고있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당위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로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모든 환경에서 평안과 소망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중에 사사오 목사님을 통해 주는 복음으로 인한 승리, 말씀을 통한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이 찬송가에 실려있기에 이 찬송의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스터턴(G. K. Chesterton, 1874-1936)이 당시 세계와 기독교 전통으로 인한 혼란함 속에서 깨달았던 “비록 오늘날 세상이 주는 무자비한 혼란함 속에서 어떻게든 세상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든 세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던 그의 결심을 많은 혼돈 속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이 되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어찌 찬양 안할까(How can I keep singing)”의 진솔한 찬양고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 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71. 아버지는 누구인가

가정의 구성원은 부부, 즉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가부장적 제도하에서 아버지는 항상 어렵고, 엄격하며,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군주형'이었지만, 이제는 가족 누구도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가정에서도 실자리를 잃어버린 '잊혀진 형'이 되었고, '아버지 없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가정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 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를 창조하셨는지?, 가정에서 아버지는 누구인지?, 아버지는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아버지 신학이 전문한 상태입니다. 겨우 있다고 해도, 추상적인 주장이나 '좋은 아버지'의 예화를 드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되고, 아버지 없는 가정으로 인하여 양산되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급선무라 사료되어, 종합 편집된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2.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딸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3.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4.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입니다.
5.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

나서 나가는 장소(그곳을 직장이라고 한다)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6.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름다운가?"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7.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8. 아들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열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번 현관을 쳐다봅니다.

9. 아버지의 최고의 자라는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10. 아버지가 가장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입니다.

11.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12.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 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13. 아버지에 대한 인생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세 때-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7세 때-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다. 14세 때-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갔습니다. 30세 때-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40세 때-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입니다.

14.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15.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16.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합니다. 울음은 열배쯤 될 것입니다.

18.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읊니다.

19.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맘이 통하는 사람만 만나면 소년이 됩니다.

20.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21.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22.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같은 이름입니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같은 크나큰 이름입니다.

23. 아버지는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24. 아버지는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변변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같은 자식을 위해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다 버리고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5. 아버지는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과 도리라는 말로 아버지 노릇을 다할 뿐입니다.

26.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눈물이 없고, 목이 메어 가슴으로 아무도 몰래 혼자서 읊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중국

▲ 종족명 류장 왕 종족

▲ 인구 인구 1,56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80%, 무교 18.8%, 복음화율 1.2%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필
평족은 중국 내 가장 큰 종족 중 하나로 16개 언어 그룹이 있다. 광시성 류장에 살며 주로 농경생활을 한다. 정령 및 조상숭배가 혼합된 종교 형태를 띤다. 정령을 두려워하여 이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19세기에 복음이 전해 졌으나 여전히 불모지다.

▲ 기도제목

- 1. 류장왕이 성경이 없는데 이들의 말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오랜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많지 않은데 부흥을 주시도록
2. 정령의 두려움에 잡혀 있는 류장 왕 종족 사람들이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꽃이 지는 허전한 자리”

하나들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사라진 자리가 많이 허전해 보일뿐 아니라 빈자리의 허전함이 제 마음에 다가와 저를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원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꽃밭을 돌아보며 꽃들이 진 자리를

살펴보니 꽃이 진 자리에 꽃들을 대신해서 꽃씨들이 맺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꽃은 어떻게든 지도록 되어 있어"

화무십일홍'이니 또는 '화무백일홍'이니 하는 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렇게 지는 과정이 없이는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씨앗은 맺어질 수도 영글 수도 없고, 또한 영근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씨앗이 없이는 그렇게 썩어지는 과정이 없이는 다시 다가오는 계절에 꽃을 볼 수 없겠구나. 그래서 꽃은 피고 지고를 거듭해야 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지는 꽃도 아름답고 귀한 것이구나....."

하기야 인생도 꽃처럼 나고 자라고 피고 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나도 지금 '지는 과정'을 걸으며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 오는 세대가 좀 더 값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가길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고 돌보

며 다듬어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겨봅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제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라(요 12:24)."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서관원처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이영선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이성자기자의 **바이블 에세이**

언어의 단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은사는 역시 무엇보다도 '말 할 수 있게 하신 것'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라 하겠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동물은 불가능하나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다. 언어는 단순히 혀를

움직이고 입을 동작하여 소리로 표현하는 '말'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얼굴과 몸으로 하는 표현의 언어, 소리 없이 나타내는 침묵의 언어가 어떤 경우엔 더욱 확실하고 강렬한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시 19:2-4)라고 노래했다.

인간의 언어는 본래 하나였

다. 그런데 그 옛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하고 도전하다가 언어의 혼잡이 왔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인류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최초로 언어의 단절 내지는 혼란이었다. 언어의 단절은 인간 관계를 손상하고 인간의 분열을 가져왔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했다. 서로 통하는 언어가 없고 대화가 단절됨으로 인간은 서로 오해하게 됐다. 인간들의 오해가 서로를 미워하게 했고, 이 미움이 커져서 인간들이 전쟁하게 되었

고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통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하나님과의 언어의 단절을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비극은 언어가 단절된 결과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어 단절로 십자가의 비극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게 되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여주심으로 새로운 언어인 '방언'을 통하여 단절된 언어의 소통을 꾀하셨다. 방언은 새로운 언어의

소통이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단절이 성령 충만으로 언어의 소통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과 방언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성령 충만과 방언은 분명히 서로 통하지 않던 단절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사인데, 오늘날 무질서하고 혼란한 방언은 새로운 언어의 단절을 만들고 있다. 바벨탑 이후의 제2의 언어 단절 내지는 언어 혼란이 생겼다. 어디서 근거 없고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잡한 소리가 하나님과 인간을, 인간과 인간을, 신앙공동체를 단절시켰다.

분명히 말은 서로 통해야 한다. 반드시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는 없을망정,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언어가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십자가에 따른 사랑의 언어는 모든 언어의 단절을 극복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교만의 바벨탑을 헐어버리고,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십자가를 세워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천국 방언으로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은사를 체험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행 2:4)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로 요구 사항이 많은 업무를 해야 하거나 일과 후에도 많은 시간을 업무에 묻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산을 경작하며 그곳을 지키게 하셨을 때(창 2:15) 그 땅에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는 없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은 기쁨과 축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7~19절에 걸친 저주의 결과, 아담에게 부여된 땅의 경작은 그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일해야 했고, 그것은 당연히 까다롭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농사가 우리의 핵심 직업이 아닐 수 있겠지만,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땀 흘려야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영역 안에 경계를 세우다

성경은 필수적인 노동 시간에 대하여 엄격한 규칙을 정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특정 직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 충분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령은 그분의 말씀을 알려 주어 우



리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우리가 하는 업무와 그 업무의 분량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동기 및 리듬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랜 근무 시간의 목적이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기 위한(골3:23~24) 이유에서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허락하신 적절한 한계 안에서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의 목표가 어떤 특정한 지위나 권력을 얻는 데 있다면 그러한 노력은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람을 녹초가 되게 만드는 업무를 통해서도 주님 안에서 느끼는 기쁨으로 일을 끝낼 수 있는가 하

면, 가벼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다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것이 균형을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쉬운 일, 휴가 또는 정규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방식, 즉, 직장 및 가정의 정을 위해 시간이나 노력을 적절하게 배분할 줄 아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현명한 청지기 직분을 위한 실질적 방법

변화가 필요한지를 점검하려면 남편과 함께 앉아 영적·신

체적 건강 상태, 결혼 생활, 가족과의 관계 및 교회 생활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가정에서의 삶을 평가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들에 대해 가족의 구성원들이 견딜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소홀해지거나, 자녀들에게 정서적 불안을 초래하거나,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가족의 필요를 다른 방법으로 채워줄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믿음의 가정에서 위협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경고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경건한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가정의 이끌어갈 가장이 이런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경우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족에게 있어서 경고의 징조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건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종종 가정이나 학교에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행동 문제는 변화가 필요한 첫 징후일 수 있고, 부족한 의사소통이나 쓴 뿌리가 늘어가는 것은 배우자로부터 나타나는 초기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수입이 줄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가계의 필요와 예산의 절감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덜 중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가장 소중한 임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 아래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

1. 즉각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청지기 직분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직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근무 조건 등을 재협상해 보거나,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거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되면 거기에는 풍성한 자유가 있다. 먼저 쉽게 시행할 수 있는 조정에나 잠재적 해결책부터 시도해 보기 바란다.

2.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될 것으로 원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그리하시 것이다.

3. 교회 내에서 조언을 구하라. 나의 상황,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가족 내에서 나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의 신뢰할 만한 장로나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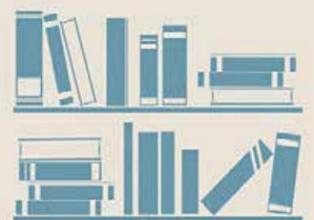
4.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현명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과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부부가 인내심을 갖고 필요로 하는 변화를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의 직업으로 인한 업무, 시간 또는 스트레스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길을 찾고, 그분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근거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맞이할 인생, 사람, 기술과 허락하신 시간의 활용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관리하게 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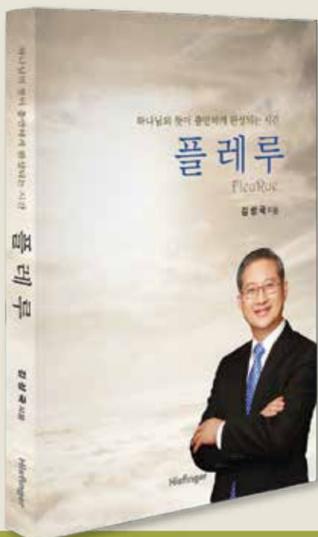
by Mary Wiley, TGC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로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견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ury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